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2. 5(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동해안 항만 인프라 조성사업 가속도 낸다** 포항영일만항, 연안항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	항만물류과	사진별첨
② **도청 신도시,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살기좋은 도시 만든다** 2024년까지 21개 사업에 7,113억원 투입.. 도서관은 하반기 개원, 정부지방청사는 내년 개청	신도시조성과	사진별첨
③ **공공도서관 생활SOC 인프라 확충과 개관시간 연장.. 도민 문화향유권 UP!** 공공도서관건립 계속사업 150억, 생활문화 SOC사업 56억 추가 확보 일과 생활 양립 지원을 위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문화산업과	
④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 펼쳐** 독립운동 이끈 경북인의 위상 재조명..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가치 재평가	사회복지과	
⑤ **풍기인삼연구소 맞춤형 인삼재배달력, 농업인들에게 인기** 월별 주요 영농작업, 병해충 관리법, PLS 농약정보 수록해 알찬 정보 제공	풍기인삼 연구소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2. 5(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항만물류과		
		작성자	과 장	김 종 인	
			팀 장	김효준	주무관 김문주
		연 락 처	054-880-7767		

동해안 항만 인프라 조성사업 가속도 낸다

- 포항영일만항, 연안항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 -

경상북도는 올해 동해안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1,738억원을 포함한 1,9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해양과학 교육 거점 육성을 목표로 울진군 죽변면에 건립 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에 351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건설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5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해안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견인할 후포 마리나항만에도 130억원을 투입해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한다.

도내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총 1,3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포항영일만항, 울릉(사동)항, 포항신항 스웰개선, 후포항 정비 등을 추진한다.

동해안 어업전진기지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있는 연안항 개발사업은 구룡포항 물양장 확충공사를 신규로 착공하게 되며, 강구항 개발사업과 함께 항내 준설, 물양장 확충, 북방파제 및 안전시설물 보수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아울러, 올해는 항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경북도는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항만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유치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수출입 누적물동량 100만TEU를 달성한 바 있는 포항영일만항을 북방물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국 및 러시아 지자체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대북 경제교류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물동량의 추가 확보를 위해 인입철도 및 배후부지를 활용해 신규 물동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안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립해양과학교육관과 후포마리나항만, 그리고 포항영일만항을 포함한 각종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2. 5(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		
		작 성 자	과 장	이 재 윤	
			팀 장	윤희열	주무관 김지숙
		연 락 처	054-880-4211		

도청 신도시,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살기좋은 도시 만든다.

- 2024년까지 21개 사업에 7,113억원 투입... 도서관은 하반기 개원, 정부지방청사는 내년 개청 -

올 연말이 되면 신도시 주민, 학생들은 다양한 장서가 구비된 경북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야간이나 주말이면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영화감상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21개 사업이 완공 또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수립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서관, 경북보훈회관, 신도시둘레길 조성 등 9개 사업은 지난 연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공 되었으며,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6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다.

아울러 미술관, 스포츠콤플렉스, 한국전통국가정원 조성 등 6개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등 계획수립 단계에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 연말에 준공된 경북도서관이다. 자료실,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등을 갖추고 있어 신도시 주민들의 문화향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한창 공사 중인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경북도가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북의 각종 정책을 종합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여성 육아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정부산하기관들의 통합운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정부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건립하는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도 2월 중에 착공하고 내년에 준공해 업무를 시작한다.

아울러, 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도립미술관, 한국전통국가정원, 호민지수변생태공원 조성,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 등이 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향후 관광자원화로 신도시 활성화를 견인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도청신도시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현재 국도28호선에서 신도시 연결도로, 지방도 916호선에서 연결도로 등 3개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를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재윤 경북도 신도시조성과장은 “신도시와 주변 지역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공공시설사업 추진은 신도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종 공공시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2. 5(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		
		작성자	과 장	황 영 호	
			팀 장	임우현	주무관 도은영
		연락처	054-880-3260		

공공도서관 생활SOC 인프라 확충과 개관시간 연장.. 도민 문화향유권 UP!

- 공공도서관건립 계속사업 150억, 생활문화 SOC사업 56억 추가 확보 -
- 일과 생활 양립 지원을 위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

경상북도는 도민의 적극적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올해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사업에 206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올해는 공공도서관건립 계속사업 4개관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 해 11월 정부 공모사업으로 '생활문화 SOC사업' 5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경상북도 문화기반정책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 공공도서관 건립 4개관 150억원(포항연일, 안동시립, 구미양포, 청도 공공도서관)

지역밀착형 생활문화 SOC사업은 10년 이상된 노후 공공도서관 일부 공간을 주민 친화형 북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이 없는 도내 독서문화 소외지역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계기로 일과 후에도 22시까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8개관* 23명에 대한 야간운영 인건비를 지원해 도민들의 일과 생활의 양립(Work Life Balance)이 가능한 삶을 적극 지원한다.

* 포항 대잠(4)·영암(4)·포은(4)·오천(2), 구미시립중앙(3), 문경시립(2), 울진 남부(2)·죽변(2)

아울러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독서환경제공 뿐 아니라 체험, 생애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창의적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이 외에도 경북 점자도서관출판 및 음성정보서비스 지원 3억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15개교 9천만원을 확보하여 독서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만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 특화된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공공도서관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복합 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2019년 생활문화 SOC 국비 보조사업 선정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 계			5,655	2,488	3,167
공공도서관 조성지원 (5개관)	소계		4,635	1,774	2,861
	포항시립영암도서관 리모델링	19	935	374	561
	안동시공공도서관리 〃	19	1,000	400	600
	영주시립도서관 〃	19	500	200	300
	문경시립중앙도서관 〃	19	1,000	400	600
	성주군립청사도서관 〃	19	1,200	400	800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12개관)	소계		1,020	714	306
	포항시작은도서관조성(청림동푸른숲)	19	50	35	15
	포항시작은도서관조성(죽장면선바위)	19	50	35	15
	포항시작은도서관조성(신광면비학산)	19	50	35	15
	포항시작은도서관조성(두호동두무치)	19	50	35	15
	포항시작은도서관조성(오천읍그루터기)	19	50	35	15
	안동시공립평생학습원작은도서관조성,리모델링	19	100	70	30
	청도군작은도서관조성, 리모델링	19	110	77	33
	이현세만화도서관리모델링	19	70	49	21
	경주화랑마을꿈마루도서관조성, 신규	19	140	98	42
	문경시작은도서관조성 (산양면), 신규	19	105	74	32
	문경시작은도서관조성 (마성면), 신규	19	105	73	31
	영덕군작은도서관조성, 신규	19	140	98	42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2. 5(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작성자	과 장	김 상 우	
			팀 장	이도형	주무관 권규보
		연락처	054-880-3733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 펼쳐

- 독립운동 이끈 경북인의 위상 재조명...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가치 재평가 -

경상북도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을 이끈 경북인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미래세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을 중심으로 ❶라디오 드라마를 제작(총 50회, 사업비 200백만원)하여 임청각을 둘러싼 경상북도 독립운동가의 치열했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긴다.

또한, ❷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상징물(사업비 300백만원)을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설치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경북도의 독립운동 정신을 형상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 내 임시정부청사 8곳의 유적지를 방문하여 ❸임시정부청사를 그린 후 작품으로 제작(사업비 66백만원)해 3.1절과 광복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여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한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❹3.1절 기념 문화행사(사업비 25백만원)를 개최해 독립선언서 낭독, 태극기 만들기 및 사격 체험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3.1절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한 경북인들'이라는 주제로 ❺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를, 광복절에는 '3.1운동과 임시

정부 역사속의 기록’ 이라는 주제로 광복절 기념 특별전시회를 각각 개최(사업비 40백만원)하고 ‘한중합작, 항일투쟁기 만주의 경북인들’ 을 주제로 한중 독립운동사전문연구자가 참여하는 ❻국제학술회의(사업비 30백만원)도 8월중 개최한다.

이 밖에도 ❼광복회원에게 행사용 의복을 지원(사업비 74백만원)하고 ❽구미 인동 3·1문화제(사업비 50백만원)를 개최해 전국 휘호대회, 고유제, 횃불행진 등을 진행하는 한편 도내에서 가장 큰 만세운동인 ❾영해 3.18독립만세의거 문화제(사업비 283백만원)를 열고 횃불봉송, 시가지 행렬, 기념공연, 학술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덕군에는 ❿태극기게양대를 설치(사업비 150백만원)해 3.1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태극기를 부각시켜 도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드높일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호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 며 “나라가 국난에 처해 있을 때 호국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한 경북인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3.1운동 이후 이어온 자유와 독립,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질 것” 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2. 5(화)】	담당부서	경북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작성자	장 장	류 정 기	
			담 당	김승한	담당자 원도연
		연락처	054-632-1250		

풍기인삼연구소 맞춤형 인삼재배달력, 농업인들에게 인기

- 월별 주요 영농작업, 병해충 관리법, PLS 농약정보 수록해 알찬 정보 제공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는 인삼 농업인들에게 최신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전파해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 인삼재배달력' 을 제작, 농업인과 관계기관에 배부했다.

인삼재배달력에는 농가들이 알기 쉽도록 월별 인삼농사의 주요 작업내용, 인삼의 주요 병해충 발생시기, 방제방법과 상세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특히,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관한 설명과 인삼에 등록된 농약정보를 실어 인삼농가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풍기인삼은 1541년부터 신재 주세붕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최초로 재배됐다. 소백산의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생산되는 풍기인삼은 내용조직이 충실하고 인삼향이 강하며 유효사포닌 함량이 매우 높다.

인삼 재배의 발상지이자 우수한 풍기인삼이 안정 생산될 수 있도록 풍기인삼연구소에서는 현장에 필요한 연구와 자료제공을 하고 있다.

류정기 풍기인삼연구소장은 "맞춤형 인삼재배달력이 지역 인삼산업에 기여하고 경북인삼주산지 농가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인삼재배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고려인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